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아 감사와 기쁨 속에 드린 2023 성탄 전야 행사와 축하 예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 마음을 활레 하면서 진리로 가득 채워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

말레이시아 지교회 대표들과 성도들은 물론 28개국에서 온라인 및 현장 예배로 함께한 ‘페낭만민농아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던 변실금이 치료되는가 하면, 아들이 삼킨 물 안의 동전이 사라지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1009호 2023년 12월 3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과 평화!”

2023 성탄 전야 행사와 축하 예배



성탄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주일 저녁예배 시 우리 교회에서는 기쁘고 행복한 성탄 전야 예배 및 축하 공연이 있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눅 2:8~11)이라는 설교로 1부 예배를 드

린 후 2부에는 예능위원회 주관 ‘Merry Christmas-with Manmin’ 축하 공연이 있었다.

예능위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연주, 위식은 물론 올해는 만민문화아카데미 싱어반, 기타반 성도들이 합창과 기타 연주로 함께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기쁜 소식’(눅 2:10~12)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당부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으며,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거저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영적인 사랑을 행해 상대에게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유념해 그 모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성탄 전야 예배 및 축하 공연과 성탄 축하 예배는 GCN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몽골어, 베트남어 총 8개 언어와 힌디어를 비롯해 선교지의 여러 언어, 각국 수어로 동시 통역되어 세계 곳곳에서 함께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브리서 10:22)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이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결과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한 이후 40년 광야 생활 끝에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곧 온 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이지요.

온전한 믿음이란,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지요. 즉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된 믿음입니다.

생령으로 지어진 첫 사람 아담에게는 ‘참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곧 영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진리의 내용물만 가득했던 생령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여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지요.

이러한 생령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 마음 안에 비진리의 내용물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더 이상 영 자체가 아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진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이에 하나님께 받아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더 이상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곧 인생들의 마음은 점점 비진리에 물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그 대신 원수 마귀 사단과 교통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희생시키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지요.

또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장차 천국을 상속받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함으로 신속히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2.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취보아야 할 말씀의 거울은 무엇인가?

1) 끝까지 변개함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단한 종살이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 강력한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지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실 물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끌어냈다.” 하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갈라진 흥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셔도 그때뿐, 마음이 변개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자기 마음이 이처럼 끊임없이 변개하니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의 문 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도 “마실 물이 없다. 가는 길

이 너무 험하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이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약 40년이나 되는 광야 생활의 보람도 없이 불 뱀에게 물려 죽는 등 너무나 허무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보고 체험할지라도 변개하는 육의 속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충성하다가도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화평을 깨므로 축복의 그릇을 엷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개하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빼내어 참마음을 이루어야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가나안 거민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거듭 당부하셨지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죄의 삯은 사망임도 알려 주셨습니다. 실제로 자기 종족과 이웃들이 죄로 인해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보아왔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의 순간에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패역을 행했습니다. 이에 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또한 가나안 땅을 침노해 들어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탐심이 동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훔침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젃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지요. 조금만 방심하면 풍요 속에 안일해지거나 쾌락에 물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할 수 있으신지요? 이 세상 사랑함을 온전히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교만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갈렙은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능히 취하였습니다. 반면, 단 지파와 같은 일부 지파들은 자신들의 방법과 힘만을 의지했기에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지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뜻을 여쭙 때는 형통하였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므로 가나안 거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수 9장).

‘교만’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가면 명백한 악은 물론, 스스로는 깨닫기 어려운 양심의 악과 본성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악까지 남김없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마음을 할레 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레란 마음을 더럽혔다가 회개함으로써 잠깐 씻고, 또다시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씻어도 다시금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양피를 아예 베어내듯이 죄악에 더럽혀지기 쉬운 마음의 가죽을 완전히 베어내는 것입니다(렘 4:4).

이처럼 마음을 할레 하면서 진리를 가득 채울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



지난 12월 3일 주일, 말레이시아 페낭에 위치한 페낭만민농아교회(담임 지정훈 목사)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 진행되었다.

28개국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현장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한 가운데 11개 수어와 2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었으며, 농아인들뿐 아니라 시부, 이포,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지교회 대표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말레이시아 만민의 축제가 되었다.



강사 임학영 목사(교역자회 부회장)는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한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전체 기도를 해 주므로 성도들이 청력이 회복되고 각종 통증이 사라지는 등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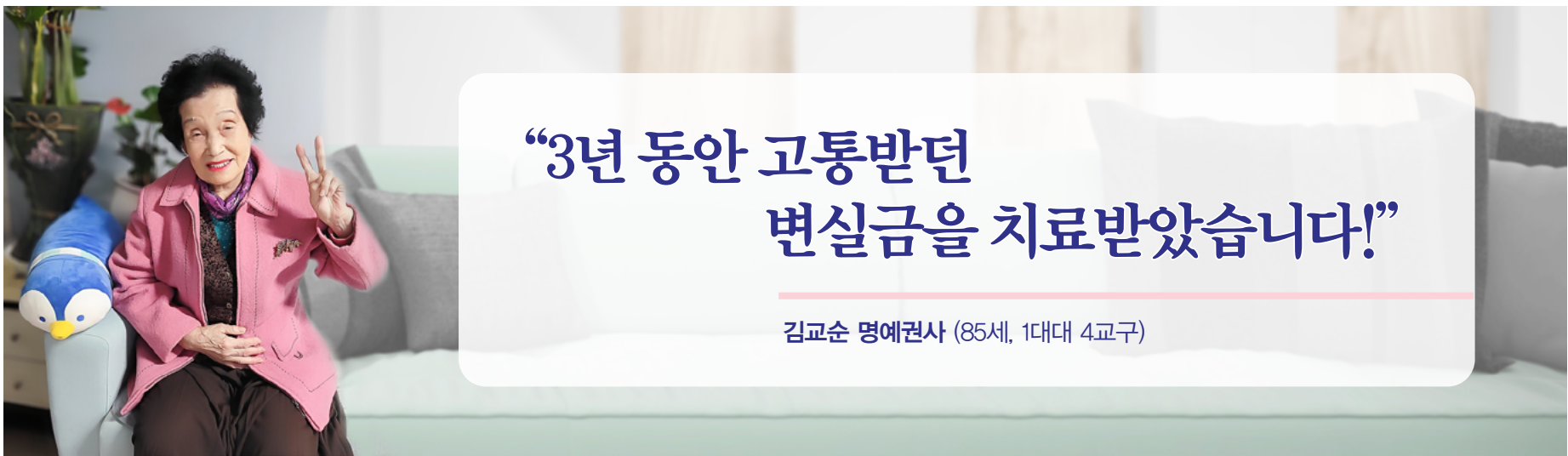
그 뒤 농아 성도들이 준비한 시부 지역의 전통춤, 여선교회 중창, 청년들의 워십댄스 등의 축하 공연과 만민의 농아 선교 역사와 해외 곳곳의 농아 성도들이 보내온 창립 축하 영상을 상영해 창립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였다.

이 외에도 강사 임학영 목사는 일꾼 교육, 유럽, 태국, 말레이시아 등 지교회별 성도 만남 등과 쿠알라룸푸르만민교회와 수도만민교회를 방문해 미니 손수건 집회와 성도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는 줌(zoom)을 통해 매주 우리 교회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으며, 많은 성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거나 이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 받은 뒤 귀가 열리고 소리를 듣게 되는 등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였다.





저는 3년 전부터 변실금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변실금이란 항문 괄약근 근육 약화로 배변을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자녀들은 물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제하며 살아야 했지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며 약을 지어 주어 한 달간 먹어 보았지만, 차도가 전혀 없었고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지요.

이후에도 7~8군데 병원을 드나들며 한약, 양약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지만 차도는 없고 밤에도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하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니 ‘자녀들 보기도 민망하고, 마음 놓고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이러한 상황을 딸(조은영 전도사)에게 말하니 그제야 제 병의 심각성을 느끼고 ‘2023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해서 꼭 치료받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련회에 가면 한 방을 사용해야 하는 기관식구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싶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딸이 가족 방을 얻어냈다고 하여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수련회를 앞두고 열린 ‘작정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7월 31일 수련회 첫날, ‘교육 및 은사 집회’ 시 수련회장

에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아랫배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참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교육 말씀을 들었고, 이러한 제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전체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는 온몸에 뜨거운 불이 임해 ‘치료받았다.’라는 마음이 들어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치료받았다고 간증하였지요.

그 뒤 변실금 횡수가 차츰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횡수도 점점 줄더니 지난 10월부터는 변실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고, 밤에도 잠을 푹 잘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던 변실금을 치료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들이 삼킨 동전이 기도 받은 후 사라졌어요!”



구디아 성도 (25세, 인도 비하르주)

지난 11월 18일, 아들 샤르지트(10세)가 실수로 2cm 크기의 동전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전이 기도를 막을 경우 아들이 숨을 쉴 수 없으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들을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찾아 회개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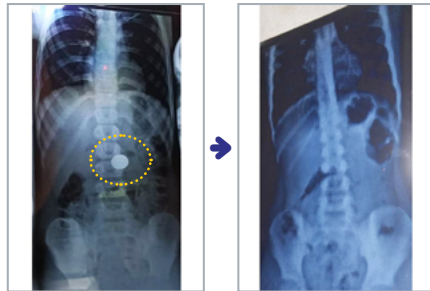
의사는 동전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정 형편상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해 간절히 기도하며 11월 20일에 화상을 통해 김상휘 목사님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습니다. 샤르지트가 배가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지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11월 24일,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샤르지트의 몸에 있던 동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셔서 아들을 지켜 주시고 몸 안에 있던 동전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X-Ray 촬영



기도 받기 전

기도 받은 후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정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새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136번길 ☎010-5434-392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오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대구엘림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11길 5 ☎010-9196-392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3917-600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